10월 2일 프랑스 파리 길상사에서 봉행된 개원 18주년 기념법회에서는 조계종 방문단의 영산재가 공연됐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원조 길상사가 있다

우리가 아는 송광사 분원 길상사는 서울 성북동에 있다. 한때 밀실정치의 현장이던 요정 대원각이었던 곳이다. 요정은 故 법정 스님의 책 〈무소유〉가 인연이 되어 부처님 도량이 됐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길상사가 처음은 아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법정 스님이 이름 붙인 최초의 길상사가 있다.

프랑스 길상사는 파리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진 토흐(Torcy)시 주택가 한가운데에 위치한다. 이 절은 어떻게 이곳에 자리 잡게 됐을까?

20년 전인 1991년 5월 19일 파리 시내 한식당 '가람'에 한 무리의 사람이 모였다. 프랑스 거주 불자였던 그들은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겸한 '재불교민 불자회'를 창립했다. 이민자의 고단한 삶을 부처님 그늘에서 다독이며 수행을 통해 스스로 위로하고 견뎌내기 위해서였다.

마음이 모이니 길이 열렸다. 같은 해 10월 13일, 파리 방문 중이던 故 법정 스님이 파리 시내에서 법회 및 강연회를 개최했다. 법정 스님은 교민 불자들의 정신적인 안식을 위해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할 수 있는 도량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스님은 발원했다.

법정 스님이 주관한 '길상사 건립을 위한 모금 강연회'에 이어 프랑스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이 '한-재불 미술작가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프랑스에 부처님 도량을 세우기 위해 많은 행사가 열렸다. 그리고 기금이 모였다.

그 결과 1993년 7월 현재 길상사가 있는 토흐시 소림로 32번지의 가옥을 매입했다. 쓰러져가는 집을 유학생 등 재가불자들이 힘을 모아 단장했다. 십시일반 서툰 손으로 단장한 도량에 인간문화재 박찬수 선생의 본존불이 봉안됐다. 재불서양화가인 연화장 방혜자 선생이 그린 후불탱화가 불상 뒤에 모셔졌다. 1993년 10월 10일 법정 스님을 회주로 '송광사 파리분원 길상사' 창건법회가 봉행됐다. 초대주지는 청학 스님이었다. 이후 파리 길상사는 프랑스 한인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주지도 여러 스님이 다녀갔다. 영명 · 자명 · 지묵 · 회일 · 천상 · 무이 스님을 거쳐 현재의 혜원 스님까지. 혜원 스님은 2006년 11월부터 길상사에 머물고 있다.

길상사는 프랑스 정부에 비영리 종교단체로 등록돼 있다. 불자들의 정성으로 정비된 도량은 건물 2동에 법당 대중방 공양간 요사채 등을 갖추고 있다. 사찰은 거사림회, 보현회, 청년회 등으로 구성된 신도들의 보시금으로 운영된다.

길상사의 법회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시작된다. 매주 법회 참석인원은 50여 명. 이 가운데 현지인은 5명쯤 된다.

부처님오신날과 창건기념일은 파리 길상사의 가장 큰 행사이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프랑스를 찾은 조계종 방문단이 길상사를 찾은 10월 2일은 마침 길상사 개원 18주년 기념법회가 열린 날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인 동희 스님이 이끄는 동희범음회가 영산재 공연을 펼쳤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지현 스님은 법문에서 "가슴으로 하는 신행생활, 나눔을 생활화하는 신행생활, 하루 한번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신행생활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원 18주년 기념법회의 주제는 '꽃비 내리는 날'이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 설법하시니 꽃비가 내렸다고 했다. 이른바 법화육서(法華六瑞) 중 우화서(雨花瑞)이다. 파리 길상사 개원 18주년 기념법회 날, 모두의 가슴에 꽃비가 내렸다.

프랑스 파리=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파리 길상사 주지 혜원 스님

파리 길상사 개원 18주년에 참가한 사부대중들

파리 길상사 전경

#네이버 길상사 카페: cafe.naver.com/kilsangsa
#파리 길상사 주소 : 32, rue du Petit Bois 77200, torcy
#찾아가는 방법 : RER A4선(디즈니랜드 방향) 'Torcy'역에서 220번을 타고 'Les Tilleuls' 정류장 하차. 버스진행방향으로 조금 걷다 'rue des Tilleuls'로 우회전, 4번째 골목이 'rue du Petit Bois', 이후 번지수를 찾아가면 된다.

"영산재? 우와~ 한국불교문화 아름다워요"

조계종 방문단 파리7대학서 영산재 공연·간담회 열어

프랑스 공립대학 캠퍼스에서 한국불교문화의 정수인 영산재가 공연됐다.

조계종 프랑스 방문단은 9월 30일 파리7대학에서 영산재 공연과 한국학과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벵상 베르제 총장, 마틴 프로스트 한국학과장을 만나 조계종립 동국대와 파리7대학의 교류 증대, 한국학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약속했다.

벵상 베르제 총장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의 환담에서 "프랑스 내 유일한 파리7대학 한국학과는 지난 6년 동안 학생수가 3배이상 늘어났다"며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학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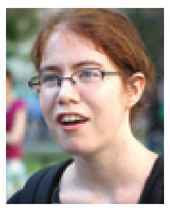
마틴 프로스트 학과장은 "(한국불교가) 다른 나라 불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하지만 한국불교와 우리 대학이 교류를 점차 확대해 나가면 관심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불교의 연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한국학과 학생들이 한국불교를 배우고 체험하고자 한다면 템플스테이 참가와 연구자료 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동국대와 파리7대학과의 교류협력 증진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야닉 학과장이 한국학과 학생들에게 교훈으로 삼을 만한 좋은 말씀을 해달라는 요청에 '내 마음이 곧 부처'라는 뜻의 즉심즉불(即心即佛)의 가르침을 전했다.

자승 스님은 "사회에서의 여러 갈등이 우리 마음 속에 번뇌를 일으킨다. 각자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평화를 이루고 부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담 후 동희범음회(회장 동희)가 주관한 영산재에는 한국학과뿐만 아니라 파리7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다.



한국학과 3학년 로안(Loan) 씨는 "17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도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문화를 배우기 힘들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의 불교문화를 새롭게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학과 장혜진 강사는 "파리7대학에서 한국학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은 늘고 있지만 최신 자료가 부족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어 "프랑스 학생들은 문화를 수용하는데 있어 열려있는 만큼 영산재 공연 같은 기회는 많을수록 좋다. 특히 1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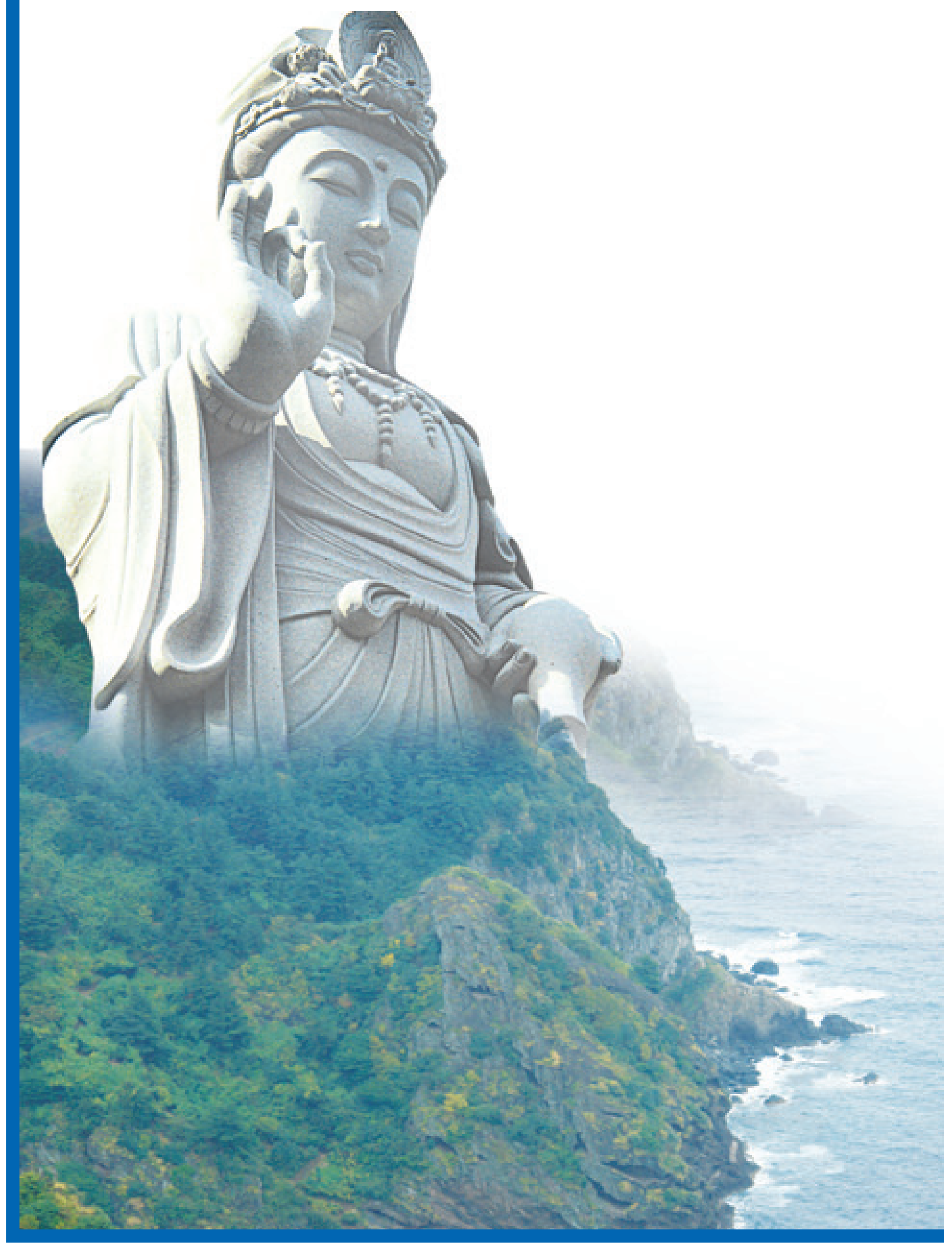
영산재 공연 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중앙종회의원 향적 스님과 미국 햄프셔대 교수 혜민 스님, 동희범음회 회장 동희 스님이 나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학생들은 이날 스님들에게 한국불교의 특징과 아시아지역 불교 현황, 티베트 음악과 한국 영산재와의 차이 등을 물으며 한국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프랑스 파리=조동섭 기자

조계종 방문단을 비롯한 파리 7대학교수 · 학생들이 영산재를 관람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파리 제7대학 벵상 베르제 총장(오른쪽)으로부터 캠퍼스를 소개받고 있다.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울릉 해도사

주 지 정비룡

남양 성인사 태하 삼도사

신도회장 도영국 外 신도회장 김도근 外

신도일동

■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TEL 054)791-2471